

# 청년의 사회자본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외로움의 조절효과-

송도훈\*, 박형주\*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연구목적

- 행복과 높은 삶의 질을 구현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많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자리 잡고 있음
- 이는 청년 세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를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 가족, 주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OECD 회원국 청년 자살률 1위,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청년세대의 주관적 웰빙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반증함.
- 이러한 문제의식에 청년의 주관적 웰빙 연구를 개진하였으며, 주관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긍정요인으로 신뢰, 네트워크, 참여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자본에 주목하고자 하였음.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변수에 모두 응답한 만 19~29세, 30대 2,47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분석은 Stata/MP 17.0을 활용하였으며, 사회자본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가 외로움에 따라 조절되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음

##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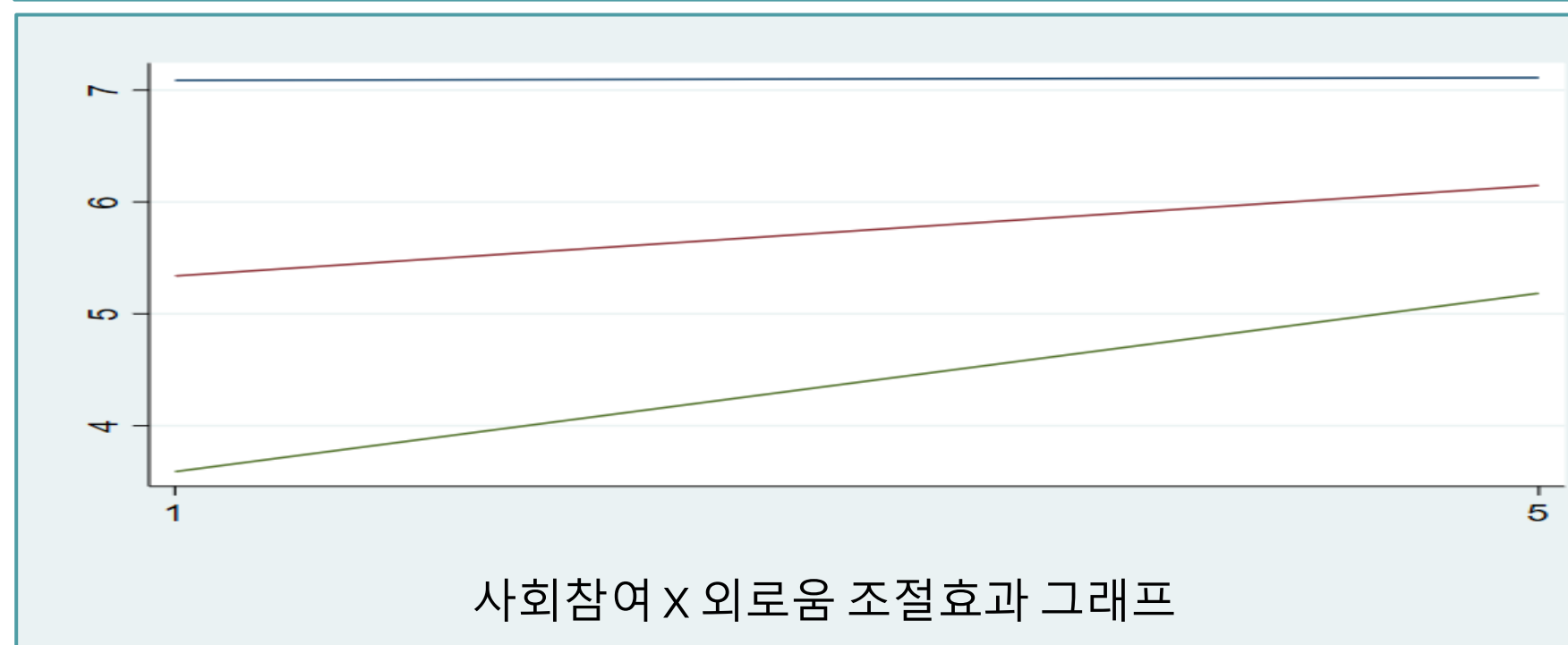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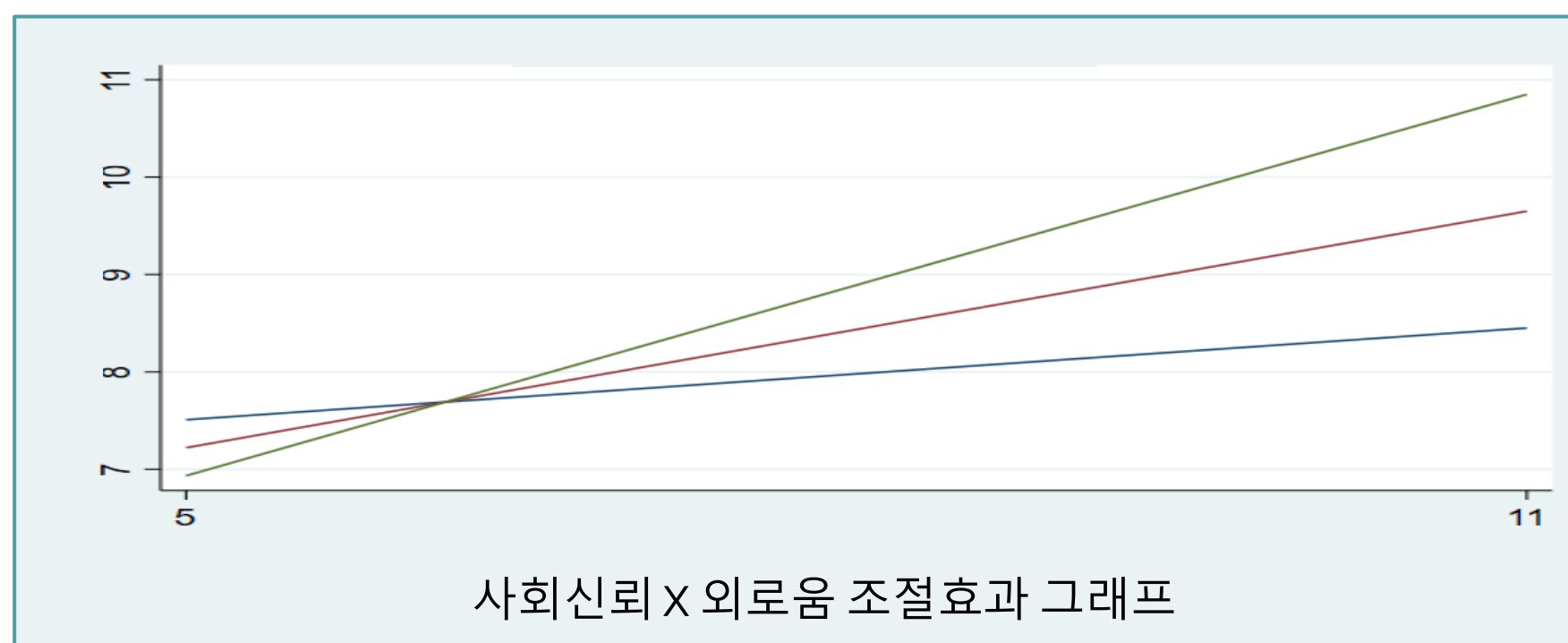
###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 성별은 남성이 52.56%, 여성이 47.44%로 남성이 많았으며, 연령은 19~29세 51.27%, 30대 48.73%로 유사한 빈도를 나타냈다.
- 결혼 상태는 미혼이 60.48%로, 교육수준은 대졸이 59.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이 21.44%,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18.81%,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15.02% 순으로,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청년의 사회자본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과 외로움의 조절효과

- 첫째, 사회자본이 주관적 웰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인 대인신뢰 ( $\beta=.084, p<.001$ ), 사회신뢰 ( $\beta=.092, p<.001$ ), 네트워크 ( $\beta=.097, p<.001$ ), 사회참여 ( $\beta=.077, p<.001$ )가 주관적 웰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사회자본의 하위요인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사회자본과 외로움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외로움이 주관적 웰빙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beta=-.303, p<.001$ ).
- 셋째, 사회자본과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회자본의 하위요인 중 사회신뢰( $\beta=.232, p<.05$ ), 사회참여( $\beta=.357, p<.01$ )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를 외로움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는 청년일수록 사회신뢰와 사회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웰빙 수준이 더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요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B (SE)	$\beta$	t	B (SE)	$\beta$	t	B (SE)	$\beta$	t	B (SE)	$\beta$	t	
독립변수	대인신뢰(A)	.291 (.069)	.084	4.21** *	.215 (.066)	.062	3.26**	.215 (.066)	.062	3.27**	.210 (.066)	.061	3.19**
	사회신뢰(B)	.232 (.050)	.092	4.60** *	.255 (.048)	.101	5.33** *	-.008 (.121)	-.003	-0.07	.246 (.048)	.097	5.15** *
	네트워크(C)	.239 (.048)	.097	4.98** *	.162 (.046)	.065	3.54** *	.171 (.046)	.069	3.72** *	.165 (.046)	.067	3.62** *
	사회참여(D)	.120 (.049)	.077	3.99** *	.082 (.029)	.053	2.89** *	.077 (.029)	.050	2.70** *	-.125 (.074)	-.080	-1.69
조절변수	외로움(E)												
	A x E												
	B x E							.165 (.070)	.232	2.36*			
	C x E												
통제변수	성별(남성)	-.020 (.049)	-.008	-0.41	-.025 (.045)	-.010	-0.54	-.023 (.046)	-.009	-0.50	-.025 (.046)	-.010	-0.54
	학력(대학 이상)	.150 (.076)	.038	1.99*	.144 (.072)	.037	2.01*	.148 (.072)	.038	2.06*	.142 (.072)	.036	1.97*
	혼인상태(기혼 및 동거)	.113 (.051)	.043	2.24*	.087 (.048)	.033	1.80	.089 (.048)	.034	1.84	.089 (.048)	.034	1.85
	혼인상태(이혼/별거/사별)	-.027 (.297)	-.002	-0.09	-.037 (.281)	-.002	-0.13	-.039 (.282)	-.003	-0.14	-.019 (.282)	-.001	-0.07
	월평균 가구소득	-.035 (.014)	-.051	-2.57*	-.029 (.013)	-.041	-2.20*	-.028 (.013)	-.040	-2.13*	-.030 (.013)	-.042	-2.26*
	주관적 건강상태	.535 (.038)	.272	14.21***	.442 (.036)	.225	12.21***	.429 (.037)	.218	11.70***	.439 (.036)	.223	12.12***
상수항	2.115 (.298)	-	7.11** *	3.967 (.304)	-	13.04***	4.663 (.423)	-	11.02***	5.106 (.482)	-	10.59***	
adj. R2	.113			.200			.201			.202			
$\Delta$ R2	-			.087			.001			.002			
F	32.42***			57.14***			52.94***			53.33***			



외로움 저수준      외로움 중수준      외로움 고수준

## 결론

- 본 연구는 청년층의 사회자본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이 높은 청년일수록 주관적 웰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로움이 중요한 조절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함. 즉, 사회적 관계망이 촘촘할수록 청년들의 웰빙이 증진되며 이러한 영향은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 청년층의 사회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예를 들어, 청년들이 쉽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관적 웰빙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둘째, 사회자본과 주관적 웰빙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층의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 심리적 지원과 사회적 환경 조성이 중요함.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사회적 지지망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